물총회 참가 보고

"식량 및 생태계를 위한 물총회"에 다녀와서

조 진 훈
(jjhjo@karico.co.kr)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금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된 INWEPF(논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 제2차 회의 준비의 일환으로FAO와 네덜란드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식량 및 생태계를 위한 물총회"에 참가하였다.

회의는 지난 1월 31부터 2월 4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를 위하여 이번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년도 11월에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예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 간에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회의가 진행 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지 못한채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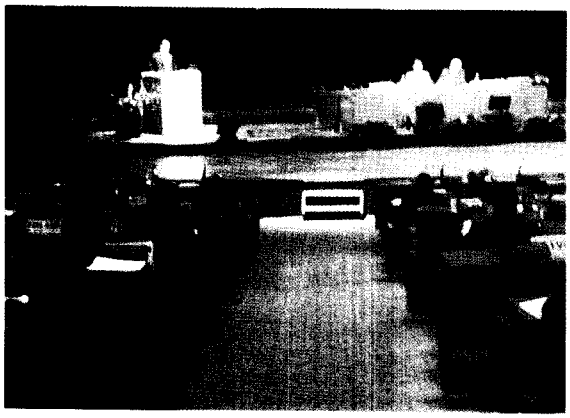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중심국가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나라이다. 물 분야에서도 세계의 개도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 이들 나라들의 학생과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시키는 한편, 경제원조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네덜란드의 영향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번 회의도 얼핏 보면 특별한 주제나 이슈, 세계 각국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현안을 다루는 것이 아닌 만큼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이렇게 대규모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집요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정책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점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회의장은 헤이그의 해안지역인 스키브닝헨 지역에 있었다. 그 전에도 여러차례 네덜란드에 와 본적이 있어 이 지역날씨를 잘 알고 있어,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느 정도 각오는 하였으나 회의기간 내내 사정없이 불어치는 추운 비바람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하긴 날씨가 좋았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회의순서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도 하였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훌륭한 시설과 그 규모로 인하여 마치 유엔대회의장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회의에 참가한 국가수는 148개국이며, 12개 세계기구와 21개 비정부단체들이 참가하였으며, 전체 참가인원은 약 5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회의장에는 각 국가별로 명패와 마이크 및 동시통역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영어, 불

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중국어에 대하여 동시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새삼 크게 느껴졌다.

본 회의에는 북한대표도 참석하였는데 나중에 만나서 알아보니 이탈리아 주재 외교관들이었다. 회의 첫날 쉬는 시간에 로비에 있는데 한국사람과 닮은 사람이 와서 유창한 한국말로 반갑게 인사를 청하여 깜짝 놀라 인사를 하고 보니 몽골에서 온 대표였다.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 하는가 물었더니 과거 90년대 초에 북한 함흥국제농업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날 회의 시작 전에 회의장에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흑인 한 명이 오더니 이번에도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 청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잠비아 자연보호 단체의 대표로 온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몽골대표와 마찬가지로 북한 함흥국제농업학교에서 수학한 사람이었다. 몽골대표에 의하면 이 학교는 5년제로서 북한이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초청하여 농업기술을 가르쳤으나 90년대 중반에 중단하였다고 한다. 비록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먼 외국에서 한국말로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다.



회의장 전경

회의는 처음 3일 간은 주제별로 3개 워킹그룹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4일째는 각 그룹별로 결론을 도출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회의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식을 하였다. 워킹그룹 1의 주제는 "실행의 촉진을 위한 행동 노하우"였으며, 워킹그룹 2와 3의 주제는 각각 "식량과 생태계를 위한 물에 대한 신경제 개념"과 "이행에 필요한 환경의 조성"이었다. 우리는 세 주제 중에서 워킹그룹 1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그룹에 계속 참여하였다.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참여자가 많은 나라들은 모든 워킹그룹에 참여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회의는 전년도 이디오피아 회의와 인터넷 가상회의를 통하여 기 도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 관계로 사실 이 전 상황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본 회의에 5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전 회의들에 대한 추진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듯이 여겨졌다. 그러고 보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점차 애매해져 가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 하면 네덜란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 국가들은 네덜란드와 FAO가 경비를 지원하므로 참여율이 높고 네덜란드의 의도대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경우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도국가로 부상하고자 하는 국가 목표에 따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국제흐름을 따라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러한 세세한 분야까지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어구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핸디캡은 치명적이다. 국제회의에 참가한 경험이 많지는 않으나 이런 곳에 올 때마다 내 영어 실력의 무기력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루속히 영어를 공용어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킹그룹 1에서는 니제르강 상류지역인 말리에서의 효과적인 물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및 생태적 소득의 창출에 대한 사례를 비롯한 4개 사례들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및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워킹그룹 2에서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의 물부족 상황하에서 식량과 자연을 위한 지속적인 물사용을 주제로 한 사례 등 4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워킹그룹 3에서는 인도의 저습지인 칠리카 석호의 복원에 대한 사례 등 4개 사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가 참여했던 워킹그룹 1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으나, 워킹그룹 2에서는 일본의 반대로 물값 산정시 총비용 반영에 대한 내용의 도입이 철회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4일째 회의 종료후 우리와 일본 및 태국대표가 만나서 다음 날 최종 결과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 3국이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였으나 다행히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규회의 프로그램 외에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특별행사들이 개최되었는데 일본은 둘째 날에 INWEPF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리는 이 행사에 차기 회의 개최국으로 초대되어 인사말을 하였다. INWEPF는 2003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물포럼에서 일본이 주창하여 논농업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국제네트워크로서 2004년에는 일본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비록 아시아 1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로서 큰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대규모 국제회의들의 준비과정과 유사한 절차들을 밟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준비위원회 구성 등 초기 단계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회의 3일째 오후에는 5개 코스 중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1개 코스를 선택하여 현장견학을 하였다. 우리는 네덜란드에서의 간척지 활용 상황 등을 보고자 네덜란드 최대의 간척지인 플레볼란드 견학코스를 택하였다. 플레볼란드는 면적 55,000ha의 간척지로서 네덜란드 간척지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크게 동쪽 간척지와 남쪽 간척지로 구분되어 있다. 동쪽 간척지는 1957년에 조성되었으며, 남쪽 간척지는 1968년에 조성되었다. 간척지 조성 후

회의장에서의 필자와 농림부 김상돈 주사

지속적인 내부개발과정을 거쳐 1985년에 현재의 상태로 개발이 완료되었다. 간척지역의 대부분이 농업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 각각 3~4개의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이주하였으며, 이들의 이주를 위하여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우리 차에 현지인이 1명 동승하였는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남부지방에 살다가 그 곳이 정부개발계획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주한 경우로서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토지를 불하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다. 조성된지 50년이 다 되는 지역인지라 현재 이 곳이 간척지라는 생각이 들지않을 정도로 자연과 마을, 기반시설 등 모든 상황이 여타 지역들과 다름이 없었다. 다만 간척지 수로 말단부와 아이젤미어호수가 만나는 지점에 육중한 수문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호수와 수로내의 수면고 사이에 약 3m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지역이 간척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 플레볼란드에서 인상적인 것으로서 자연보호구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간척지 중 특히 저지대의 일부인 약 2,500여 ha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하여 동물들의 낙원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외곽에 설치된 도로를 따라 차량 내에서만 동물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사슴과 야생 소, 그리고 각종 조류 등이다. 특히 야생소는 과거 유럽 전역에서 번성하였으나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현대적인 육종기술에 의하여 복원되어 이 지역에 방목되고 있었다. 차량이동 내내 많은 수의 동물 무리들을 볼 수 있었으며,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함께 한 일행들 대부분이 아프리카인들로서 그들에게는 이 비옥하고 넓은 땅을 경지로 활용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눈치였다. 질문도 주로 이러한 방향에 집중되었다. 하긴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자연지역은 천지사방에 널려 있고 식량이 부족한 이들에게 선진국들의 이러한 정책이 이들에게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종합적인 수자원관리의 지향과 이를 위하여 모든 관련 기구들의 참여 및 협력
- 오염에 대한 벌칙 및 환경적 규제에 대한 이행과 준수
- 물의 경제적 개념에 대한 의식개혁 및 생산성 향상
- 적절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물관련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물관련 국제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향상된 국가경제력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건상 우리가 물분야의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국제적인 동향과 흐름은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